

金史良의 <駑馬萬里> 연구

李春梅¹

1. 들어가는 말

김사량은 1930년대 말에서 일제의 항복까지의 이른바 한국문학의 암흑기에 소설, 평론, 르포 등 여러 장르에 걸쳐 활발한 창작 활동을 보여준 작가이다.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하고 우리 민족의 해방투쟁이 좌절에 처해 있던 1945년 5월, 김사량은 중국 태항산(太行山) 항일근거지로 탈출함으로써 항일의 제일선에서 붓을 무기로 조선의용군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노마만리>는 바로 김사량의 중국혁명 체험과 조선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을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따라서 <노마만리>에는 항일전쟁시기 중국형상, 태항산 지역의 풍토와 인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의용군의 피의 투쟁사가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노마만리>는 일제 말기 중국의 항일근거지를 찾은 한 정직한 작가의 진실한 기록으로서, 귀중한 역사적·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김사량의 <노마만리>는 작품이 갖는 여러 의미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을 뿐, 작품 자체가 갖는 귀중한 역사적·문화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마만리>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항일전쟁시기 중국의 현실상황 및 기타 항일전쟁 기록과의 대비를 통해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가지는 역사적·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중국혁명을 다룬 저술에서 차지하는 <노마만리>의 위치

1936년 모택동(毛澤東)이 중공기관과 중앙홍군을 이끌고 2만 5천리장정을 걸쳐 섬북(陝北)에 도착한 후, 중국은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에 살고 있는 진보적 인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1936년은 중국이 오랜 기간 끌어왔던 홍군과 백군 사이의 내전을 벗어나 일제에 대한 전면항전으로 돌입하고 세계적 범위의 반파시스트전쟁은 마야흐로 서막을 열려 하는 등 세계정세가 대전환을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 무렵에 많은 국제적 인사들이 중국에 와서 항일전쟁에 참가했는데 그 중에는 유럽과 미주에서 온 기자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람들만 나열해 보아도 독일의 헨스 쉬버, 뉴질랜드의 루이 엘리, 영국의 죠지 애커, 미국의 에드거 스노, 님 웨일스, 슈미트래, 안나 루이스 스트롱, 엠스타인, 헨센, 폴먼, 갈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들은 현장 취재를 통해 중국의 항일투쟁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전 세계에 보도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외국기자는 에드거 스노(1905-1972)이다. 그는 중국공산당에 관한 보도와 모택동과 관련한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928년 중국 상해로 와서 『차이나 위클리 리뷰』의 편집차장이 되었다. 그 후 10여년에 걸쳐 중국문제 연구와 보도에 전력했다.

1931년 '9.18'사변이 폭발하자 스노는 심양(沈陽)으로 달려가 동북군 사령장학량(張學良)을 취재했고 동북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침략자 일본군의 죄행을

¹ 中國 青島農業大學

폭로했으며, 1932 년 상해 ‘1.28’사변이 발생한 후에는 일제의 침략에 용감히 저항하는 19 로군과 상해 인민을 취재하면서 생생한 현장르포를 발표하여 중국인민의 항일전쟁을 찬양했다.

그는 또 『뉴욕 선 New York Sun』(1934~1937), 『런던 데일리 헤럴드 London Daily Herald』(1932~1941) 등 잡지의 특파원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1935 년 ‘12.9’운동 당시 연경(燕京)대학교수로 있던 스노는 애국청년들과 함께 항일데모에 참가하기도 했다. 1936 년에는 송경령(宋慶齡)의 소개로 연안지구에 들어가 모택동, 주은래(周恩來) 등과 회견하고 『붉은 별이 중국을 비추다 Red Star Over China』를 저술하여 중국공산당의 실상을 세계에 소개했다.

1937 년 ‘7.7’사변 발발 시에는 북평(北平) 남원(南苑)에서 중일전쟁의 시작을 목격하였고 9 월 말에는 상해에서 ‘8.13’ 송호(淞滬)항전을 목격하였다. 그는 일본의 중국침략전선을 따라 한구(漢口), 중경(重慶), 서안(西安)으로 이동하면서 중일전쟁에 관한 많은 현장르포를 썼으며 1939 년에 다시 한 번 연안에 갔다. 1941 년 스노는 ‘환남(皖南)사변’에 대한 보도로 국민당의 타격을 받아 할 수 없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다.

미국에 돌아간 후 스노는 계속해서 미국 인민과 세계 인민을 향해 중국의 항일전쟁을 선전하면서 중국의 혁명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후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는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Saturday Evening Post』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종군했으며, 소련 · 중국 · 인도 등을 방문하고 『우리 편의 민중 People on Our Side』(1944) · 『소비에트 세력의 형태』(1945)를 출판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미국정부가 신생의 중국에 대해 고립정책을 취하고 무장으로 대만(臺灣)의 장개석(蔣介石)을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스노는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1960 년에 북경을 방문하면서 중 · 미 양국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려고 했으며 『오늘의 중공 Red China Today : The Other Side of the River』(1961) 을 저술했다. 그는 기자 신분으로 닉슨의 북경 행을 보도하려 했으나 바로 닉슨이 베이징으로 가는 그 주일(1972.2.25)에 압으로 세상을 떴다. 그는 임종 시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면서 유골의 절반을 중국에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좇아 그의 유골의 절반은 현재 베이징대학교 캠퍼스의 미명호(未名湖) 가에 묻히게 되었다.

스노는 처음으로 홍색 소비에트 구역에 들어가 중국혁명을 보도한 서방 신문기자이며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모택동을 취재하고 『모택동전』을 쓴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우위는 중공 지도자와 홍군 장령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보통 홍군전사, 농민,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그는 소비에트 구역 임시수도인 보안(保安)에서 모택동과의 장시간에 걸친 담화를 통해 2 만 5 천리장정에 관한 1 차 자료를 수집했고 국민당 중앙부대와 의 전연진지인 영하(寧夏) 남부의 예왕현(豫旺縣)에까지 갔으며, 다시 보안과 서안을 걸쳐 북평으로 돌아갔다. 그는 10 월 말 10 여권에 달하는 일기책과 노트, 30 개의 필름을 가지고 “그 사이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객관적이며 무당파적인 견지에서 보도”² 했다. 그가 북평에 돌아갔을 때는 마침 ‘서안사변(西安事變)’이 폭발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우선 영 · 미 신문잡지에 여러 편의 르포를 발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후에 그것들을 『붉은 별이 중국을 비추다』라는 책으로 묶었다.

² 埃德加 · 斯諾 著/董樂山 譯, 『西行漫記』, 三聯書店, 1979, pp.7~8.

이 책이 1937년 10월 런던에서 처음으로 영어판으로 출판될 때 5차나 재판되었으며, 11월에 미국에서 출판할 때는 3주내에 1만 2천권이나 팔렸다. 그 후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20여개 언어문자로 번역 출판됨으로써 세계상에서 가장 환영받는 베스트셀러의 하나로 되었고 중국문제를 연구하는 외국인들의 필독서로 되었다.

1938년 2월 10일 임담추(林淡秋), 매익(梅益) 등 진보적인 지식인 12명의 집단번역에 의해 상해 복사(復社)의 명의로 출판한 『서행만기(西行漫記)』는 최초의 중국어 완역본이다. 중국어로 번역할 때 국민당 통치구역에서 발행할 때 생기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래의 제목 『붉은 별이 중국을 비추다(紅星照耀中國)』가 아니라 기행의 형식으로 『서행만기』라고 고쳐 달았다.

이 책은 처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 중국 공농(工農) 홍군의 2만 5천리장정 경과를 전면적으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민족해방을 위하여 간고하게 분투하는 정신과 투쟁 상황, 중공당원과 홍군전사들의 불굴의 의지, 중공 지도자들의 위대하면서도 평범한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었다. 또 중공의 기본정책과 홍군의 군사책략을 소개하는가 하면 소비에트 구역의 군민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지방정치개혁과 민정풍속습관 등에 대해서도 광범하고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또 취재과정에 있었던 일과 느낌 등도 솔직히 털어 놓으면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중공과 농민을 주체로 하는 중국민중의 정신적 유대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놀라운 분석력으로 중국혁명이 발생한 배경과 발전한 원인에 대해 깊이 탐구하였다. 따라서 작은 붉은 별이 서북뿐만 아니라 전 중국 나아가 전 세계를 비출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책은 전 세계를 향해 진실한 보도를 진행함으로써 중국혁명의 국내외적인 영향을 확대하였고, 중국의 반침략 전쟁에 대한 국제상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으며 국민당의 9년에 달하는 언론봉쇄를 타파하고 중공에 대한 왜곡과 요언을 와해하였다.

위대한 국제주의 전사인 노먼 베쑨(1910-1939)³과 커디화(1910-1942)⁴의사는 바로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먼 길을 마다하고 중국의 항일전쟁을 지원하러 왔던

³ Henry Norman Bethune, 캐나다 공산당원,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 1938년 3월, 캐나다 공산당과 미국 공산당의 파견을 받고 캐나다인과 미국인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거느리고 중국 연안으로 감. 8월에는 팔로군 진찰기군구(晉察冀軍區) 위생고문으로 임명됨. 그는 전지(戰地)유동의료팀을 조직하여 최전선을 드나들며 부상당한 전사들을 치료했고 의료기계를 연구 제작했으며 위생학교를 세워 의료일군을 양성하는 한편 많은 의료도해수첩과 전지의료교과서를 편찬하였다. 1939년 10월 하순에 수술을 진행하다가 왼손의 중지가 수술 끝에 베어 감염되었는데 후에 패혈증으로 악화되면서 11월 12일 새벽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12월 1일 연안 각계에서는 성대한 추도대회를 열었고 모택동은 친히 만사(輓詞)를 썼다. 모택동은 또 21일에 <베쑨를 기념하여>라는 글을 써서 베쑨이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을 위해 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중공당원들이 베쑨의 국제주의 정신과 공산주의 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호소했다. 베쑨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방구내의 병원은 대부분 베쑨병원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1940년 4월 허북성(河北省) 완현(完縣) 군성남관(軍城南關)에 베쑨 묘소를 앉혔고, 1952년에 영구를 석가장(石家莊) 열사능원으로 옮기었다.

⁴ 본명은 드와카나스 쉐타라무 커디스 Dwarkanath Shantaram Kotnis, 인도인, 외과의사이다. 커디화는 성 '커디'에 중화(中華)에서 '화'를 따다가 지은 중국식 이름이다. 1938년 9월 17일, 인도 국대당(國大黨)의 파견을 받고 다섯 명의 의사로 구성된 인도 원화(援華)의료팀의 일원으로 중국에 왔다. 1939년 1월 연안에 도착, 선후로 연안과 화북(華北) 항일근거지에서 팔로군병원 외과 주치의로 활약함. 베쑨의사가 희생된 후인 1941년 1월, 베쑨국제평화병원의 제 1임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악조건 하에서 부상자를 구하기에 전력하면서 중국의 의료인원을 배양하기에도 힘썼다. 1942년 7월 7일에 중국공산당에 가입, 12월 9일에 지병인 간질이 도져 불치로 사망함으로써 베쑨의 뒤를 이어 중국의 항전사업과 민족해방사업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또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국내에서도 독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혁명을 인식하며 광명을 추구하게끔 인도함으로써 중국의 청년들이 분연히 혁명의 길로 나서게 하기도 하였다.

『서행만기』는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인물성격 부각, 환경 묘사, 서사 각도 등 보고문학 창작의 방법 면에서도 전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작품으로 김사량의 장편르포 <노마만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랫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3. <노마만리>에 반영된 항일전쟁시기 중국형상

1945년 5월 30일 김사량은 순덕(현재는 현대) 역에서 하차하여 자동차와 도보로 일본군의 봉쇄선을 돌파해 6월 2일 태항산 근거지에 도착한 후 해방 때까지 조선의용군들과 함께 생활한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사량은 탈출의 과정과 태항산채에서의 생활과 견문 및 소감 등을 보고문학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1946년 1월부터 『민성』에 <연안망명기>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3월부터는 <노마만리>로 제목을 바꿔 이듬해 7월까지 연재하였다. 1947년 북한 양서각(良書閣)에서 단행본으로 펴낼 때, 『려마천리(驢馬千里)』로 제목을 바꾸었으나 그의 사후인 1955년 『김사량선집』에 수록할 때 편자들에 의해 <노마만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김사량은 중국의 항일유격전에 몸을 던진 한국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장개석의 독재와 내전정책을 반대하는 한편 항일하면서 해방구를 건설해 가는 중국혁명의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했다.⁵

우선 <노마만리>는 일제의 철제 밑에 신음하는 중국의 형상을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민중적 국제연대감을 표명하였다. 어렵사리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들어온 김사량의 눈에 먼저 비친 것은 일본군의 토벌로 인해 황폐화된 농촌정경이다. 일제는 토벌할 때는 삼광(三光)정책⁶을 실시하였고, 작전이 끝나고 철수할 때에도 함부로 민가에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하며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당시 중국 농촌은 그 참화(慘禍)를 입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성문 지붕은 부서지고 토성도 군데군데 포격을 당하여 무너진 채’였다거나 ‘집집이 전화를 입어 완전한 집은 거의 하나도 없으리만치 스산한 거리’ 등 표현은 당시의 농촌정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쪼들어빠진 얼굴, 뼈만 남은 팔죽지, 헐벗은 옷, 손에 들고 씹어 먹는 모래 같은 겨죽...’ 등은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중국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김사량은 일제의 군화(軍靴)가 짓밟고 지나간 농촌의 피폐한 상황을 소개하고 나서 화룡점정(畫龍點睛) 격으로 일군의 군용견과 야산에 널린 승냥이의 소동 및 실신한 배장수 노파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일본군의 야만성과 잔혹성을 고발한다.

일군이 데리고 온 군용견에 무고한 백성들이 물리어 살이 뜯기고 뼈를 갈리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났다. 민병 포로들을 나무에 끌어매고 주민을 모아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 처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피에 주린 군용견을 풀어 놓아 물어뜯어 죽이게 했다. 군중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돌아서서 두 손으로

한명의 국제우인으로 됨. 모택동은 커디화를 기념하기 위해 친히 족자를 썼고, 새 중국이 건립된 후 묘지를 화북군구 열사능원으로 옮겼으며 1976년에는 하북성 석가장시에 그의 기념관이 세워졌다.

⁵ 본고는 (김사량 저, 『김사량선집』, 국립출판사, 1955)을 텍스트로 함.

⁶ 소(燒), 살(殺), 창(搶)의 삼광-중국인의 것이면 모조리 불살라라, 중국인이면 남김없이 죽여라, 중국의 모든 물건을 빼앗아 빈탕을 만들어라.

얼굴을 감싸고 사지를 떨었다. 군용견은 쾅쾅 소리를 내어지르며 물려들었다. 용기를 내어 구해보려고 뛰쳐나오는 자는 동류라고 하여 일본군들이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다. 일본군이 소탕(토벌)을 하고 지나간 마을은 ‘시체가 골짜기를 메워 승냥이와 까마귀 뿐’이었다.

김사량 일행은 배장수 노파를 우연히 만난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일본군에게 잃고 그만 실성해 버렸다. 그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집의 할머니냐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흔들고 나서 머리를 가리키며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시늉을 해 보였다.

“...저 포대에 있던 왜놈들이 배를 사자구 저분의 아들을 데리구 가서 다 집어먹으니깐 돈을 내라구 하였지요. 정말 가난한 배장수였습니다. 하니까 엉뚱이를 걷어차며 나가라고 하겠지요.”

“몇살이나 되던 사람인데?”

“스물셋이었지요. 외아들인걸요. 그래 할 수 없이 나오느라니까 또 들어오라는군요. 그래 또 들어가니까 이마 네 여편네를 보내라 돈을 줄테니.”

“그래 어떻게 되었소?”

젊은이는 울상을 짓는다.

“침을 뱉었다나요. 죽히 그럴사람인걸요. 저하구 아주 친한 동무였습니다.”

“그래 맞아죽었소?”

“죽은줄이야 몰랐지요. 밤이 깊어두 돌아오지 않기에 저 할머니가 아들을 찾아 포대루 가서 들어가려니까 거뿔하니 어깨를 치는게 매달려 있겠지요. 화닥닥 놀래여 물러서서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의 시체가 덜렁 덜렁 매여달려 있거든요. 이걸 본 뒤로부터 실성했습니다...”(중략)

노파는 제소리를 하는줄도 모르고 그냥 량겨 우쾌첸⁷을 부르며 오던길을 되짚어 되뚝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⁸

이 ‘산송장’과 같은 중국 노파의 형상은 일본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깊은 상처를 받은 중국 현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처량한 중국 서민들의 참상을 김사량은 결코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 중국의 현실을 통해 김사량은 일제치하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자기 조국의 백성들을 연상하며 양자의 동일성을 느낀다. 중국인들을 ‘우리 못지않게 불행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형용 못할 애달프고 노여운 심사’를 가지게 된다. 특히 배장수 노파와 거의 비슷한 비극을 맞은 평양의 한 과부의 일을 연상한다. 그 과부의 아들은 소위 지원병으로 되어 일본군 병영으로 끌려갔다가 용케 탈출해 잠깐 집에 들른 것인데 집주변에 숨어서 지키고 있던 일본 헌병과 주재소 순사들에게 걸려들어 화를 당한 것이다.

어떤날 밤중에 문가에서 무엇이라고 고함소리가 들리더니 난데없는 총소리가 일어났다. 놀래여 이 과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훌쩍쳐내 뛰여 나갔다. 달밤이었다고 한다. 밤마다 집을 포위하고 있던 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꿈을 꾸는것일가 환각이었을가 이상한 일이라고 뜰안을 더듬어 다니며 살피던 그는 별안간 악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못박히었다. 넘어오던 반신이 담정우에 느러진채 달빛밑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달려가 쓰러안고 보니 분명 헌병대로 붙들려 들어갔던

⁷ 兩個五块钱, 중국어로 배 두 개에 5원이라는 뜻.

⁸ 김사량 저, 『김사량선집』, 국립출판사, 1955, pp.123~124.

둘째 아들이었다. 얼마 안되어 불상한 과부가 정신에 이상이 생겨 온 동네와 근방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⁹

김사량은 일제의 철제 하에 신음하는 중국과 자기 조국의 참상을 확인함과 아울러 중국 태항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생활사적 측면에서 세심하게 고찰하여 자세하고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마만리>에서의 민중생활에 대한 기록은 에드거 스노의 『서행만기』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노마만리>에서는 태항산 지역의 풍토와 인정세태, 어려운 생활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주야로 기온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게다가 비도 제대로 오지않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여 자연적 조건이 되우 좋지않은 편이다. 재작년같은 해는 여름내 비 한방울 떨어지지 않아 난알이란 난알이 모두 타죽고 산과 들의 풀잎까지 말라죽는 그러한 대흉이었다고 한다. 그 시들은 풀잎을 들과 산을 헤매여 거의 못먹는 풀이 없이 모두 뜯어먹으며 가까스로 연명해 온 것이다.

“흔히 일백 열두가지 풀을 먹었다고 합니다.”

“버들잎까지 먹으면서요?” 하고 물으니 버들잎까지가 아니라 그것은 상식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길을 가며 어찌다가 농가에서 백성들이 훌훌 들이키는 국물을 드려다보면 좁쌀을 띄운 허엽스레한 호박국물에 푸르스름한 이파리가 떠 있었다. 애버들 잎을 이른 봄에 뜯어 우려서 쓴맛을 덜어두었다가 이렇게 끼니마다 두어 먹는다. 그 시금털털한 냄새가 일종의 향료로 되는 모양이었다. 하기는 우리나라 버들과는 종류부터 다르다고 한다.

어쨌든 본시부터 이 산지대의 자연적 조건이 헤아릴 수 없이 각박한 데다 해마다 외적의 침해까지 더 덮치여 산민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황폐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산중에는 먹는다는 ‘즈’라는 말은 없고 ‘허’라는 마신다는 말이 있을 뿐이었다. 밥을 지어 먹는것이 아니라 국물을 들이키기 때문이다. 이 버들잎을 띄운 국 그릇을 골목이나 행길가에 들고나와 열을 짓고 앉아서 이야기를 반찬거리로 삼아가며 훌훌 들이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지나가며 인사라도 하는 이가 있으면 국그릇을 들어 보이며

“허바!”한다.

힘을 받을만한 국 거리가 들지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네번쯤 끓여먹는 것이었다. 초도화한 근거지의 생활은 이럴 수 밖에 없었다.¹⁰

여기서 김사량의 예리한 관찰력과 유머러스한 자세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중국어로 ‘즈(吃)’는 ‘먹다, 마시다, 피우다’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지만 주로 밥이나 요리 같이 고체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허(喝)’는 물이나 죽 같은 액체로 된 음식을 마시는데 한하여 사용된다. 지나가며 인사라도 하는 이가 있으면 ‘허바(喝吧)!', 즉 ‘한 그릇 마시지요’ 하고 권한다고 표현하여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태항산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유머러스하게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노마만리>에는 태항산 지역의 풍토와 인정세태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밥그릇을 골목이나 행길가에 들고 나와 열을 짓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식사한다거나, 풍토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끓인 물을 마신다거나, 문짝 같은 것을 떠다가

⁹ 위의 책, p.126.

¹⁰ 위의 책, pp.110~111.

마당 구석에 놓고서 잔다거나 하는 것은 이 일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습관이다. 네모진 돌 지붕이 한나절 폭양아래 달아올라 온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으나 바람이 선들거리며 모기도 극성을 부리지 못하기에 이 지방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는 지붕 위로 올라와 담소를 즐긴다.

그리고 이 일대는 호두와 대추의 명산지여서 대추로 술을 빚고 호두로 방등이 기름까지 쩐다. 나귀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므로 긴 채찍을 등에 꽂고 나귀 잔등에 던지시 올라앉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석양을 안고 돌아가는 풍경은 퍼그나 풍류적이다. 또 아슬아슬 추워오다가는 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열이 40 도까지 오르는 증상을 보이는 이 지역의 풍토병에 대해서도 소개하는가 하면, 앞이마 위에 메추라기의 관처럼 머리털이 달린 중국 애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헤어스타일 등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또 술 밑을 긁어모은 까만 재를 담은 접시에 부싷돌로 불을 떨어뜨려 재가 반짝거리며 타들어가게 하거나, 유향을 끝에 묻힌 삼대를 대어 불을 확 하니 일으키는 방법 등 점화법(点火法)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김사량의 <노마만리>는 태항산 지역의 풍토와 이 지역 서민들의 인정세태와 풍속습관을 꿰뚫히 기록하여 당시 태항산 지역에서 살아가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여실하게 전해주기도 한다.

또한 <노마만리>는 태항산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함께 변화된 새로운 사회, 정치, 문화적 현실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피폐한 농촌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공은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한다. 이는 <노마만리>에 나오는 장거리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역시 이 장거리도 전화를 입어 형지없이 파괴되었으나 마침 장날이어서 거리가 흥성흥성 하였다. (중략) 지저분하고 너절한 먼지투성이의 골목길이었다. 어디선지 땡그랑거리는 쇠소리, 동고소리, 호궁소리도 들려온다. 잎담배 가루담배 권연 이런 담배장수가 많다. 비누 성냥 손거울 붓 떡 밀가루 조 강냉이 천 의복 마구……과일은 살구 복숭아 능금 참외 수박 호도 거의 없는것이 없다. 그리고 약장수, 신기레, 뽕쟁이, 리발사……모름지기 변구 산꿀짜기의 모습이 여실하였다. 적지구의 삼분지일도 안되는 혈값으로 매매되며 화폐가치는 또한 날로 오르고 있었다. 자작자급에 의하여 모든 부족을 참고 이겨 나가려는 정부의 시책때문에 일본제품은 좁체로 받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으나 가다가다 찾아볼 수 있는 적지구산의 치솔 만년필 이런것은 엄청나게 비싸다.¹¹

태항산 지역의 장거리에는 기타 지역의 장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말 장수, 점쟁이들을 볼 수 없고, “타도 일본 제국주의”나 “반대 국민당 전정” 등의 구호가 담벽이나 기둥에 써어 있다. 서점에서는 스탈린의 『레닌주의 제 문제』,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연합정부를 논함』과 같은 책자와 기타 팔로군과 중공의 정풍에 관한 문건, 소설과 번역서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항일근거지의 건강하고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정신풍모와 정신문화를 잘 보여준다.

또 모택동이 ‘문예강화(文藝講話)’를 발표한 뒤로부터 정령(丁玲), 소군(蕭軍), 입파(立波), 이정(里丁), 오백소(吳伯蕭), 서군(舒群), 애청(艾靑) 등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연안 혹은 섬감녕변구와 전선에서 사업함으로써 중공의 노선에 호응하여 해방구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해가며 학교를 세우고 문맹을 퇴치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다.

¹¹ 위의 책, p.99.

<노마만리>에는 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총동원되어 소년단, 청년의용군, 민병편의대, 농민자위군, 생산유격대, 부녀단체를 조직하여 자아 경비를 하고 근거지를 지켜가는 민중의 조직 역량이 잘 그려지고 있다. 작품은 길목이며 산모퉁이 혹은 동구 밖에 앉아있던 부인이나 노인, 어린애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어디서 오느냐? 어디로 가느냐? 증명서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며 만약 이런 때에 어름어름하여 의심스레 보이면 곧 뒤로 연락하여 군인이 나타난다고 하여 백성들이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간첩과 한간들의 침입을 방지하며 항일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자그마한 힘이나마 공헌하려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어린애들마저 “우리는 반공의 주력군(我們是反攻的主力軍)”이라는 군가를 부를 줄 알 정도로 해방구의 인민들은 팔로군을 지지하면서 해방구를 건설해 나가기에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노마만리>는 중국에 있어서의 두 개의 군사역량 즉 국민당과 그 군대, 중공과 팔로군의 구별과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국민당 군대는 이미 전의를 잃고 패퇴의 일로를 달릴뿐이었다. 중요한 도시를 마구 버리고 달아나며 전략요지를 싸우지않고 내여맡기고 혹은 총을 던지고 속속 투항하였다. 뿐만아니라 국민당정부의 내부도 여지없이 타락하고 부화하여 국가의 일대 위기에 처해있음에 불구하고 탐관오리들이 국난재(國難財)의 편취를 능사로하고 인민을 압박착취하였다. 게다가 패주하는 군대까지 략탈을 자행하여 도탄에 든 백성들은 참담한 전화속에 류리전전하는 현상이었다.¹²

인용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국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비해 중공과 그 영도하의 팔로군은 가장 불리하고도 악착스러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중국에 진주하고 있는 일군 병력의 반수를 견제하며 철저한 유격전쟁을 강행하여 인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마만리>는 항일민족통일전선정책, 중공 10 대정책, 관대한 포로정책, 세계 반제 · 반독재연맹과 반일통일전선을 결성할 데 관한 정책 등 중공의 기본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사실로 모주석의 말씀처럼 우리 중국에는 두가지의 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인민의 권리와 생활을 파멸케하며 나라를 망치고 적을 리롭게하는 국민당정부의 반동로선과 또 하나는 중국 인민이 한길로 통일되어 항일력량의 총동원밑에 적을 뚜드려 부시고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우리의 로선—그러자면 하루바삐 우리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 그리고 무당무파의 대표인물들이 단결하여 민주주의 임시 연합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후략)”¹³

항일민족통일전선정책은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일체 항일하려는 역량을 모두 단결하고 묶어세우려는 것이다. <노마만리>에는 해방구로 도망해온 한국인 학도병과 일본인을 국제적 동지라고 해서 환영하는 장면이며, 포로를 교육 · 개조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져보게 하려는 팔로군 간부의 말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군이나 조선의용군이나 일본인 해방연맹 맹원이나 모두 폭넓게 포섭하여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결성하자는 것이 중공의 기본 항일정책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¹² 위의 책, p.201.

¹³ 위의 책, p.159.

또 대적투쟁(對敵鬪爭), 정병간정(精兵簡政), 통일영도(統一領導), 옹정애민(擁政愛民), 생산운동(生産運動), 정돈삼풍(整頓三風), 삼삼제(三三制)¹⁴, 감조감식(減租減息), 간부심사(審査幹部), 시사교육(時事教育)의 중공 10 대정책과 관(官) · 민(民) · 병(兵)의 단결을 주장하는 신민주주의정책 및 자작자급(自作自給)정책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팔로군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교육과 사회생활 등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작품은 선진적인 무기로 무장된 일제나 국민당 군대와 달리 좁쌀과 보충으로써 적들의 이중토벌을 피하면서 유격전을 진행하는 팔로군의 불리한 투쟁환경이며 낙후한 의료위생조건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야영부대며 농민들과 같이 노동하는 군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팔로군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임을 보여준다.

부득이 부락이나 민가에서 숙영하게 되면 이네들은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폐를 덜기 위하여 문밖이나 혹은 대문간 봉당 같은 곳에 잠자리를 만들고 아예 방안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즈럽힌 마당을 쓸어주고 물을 길어다 주고 가지고 온 량식이 모자라면 량표를 떼어주고서 쌀과 바꾸어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 건 이네들이 이렇게까지 돌보아주고 아끼니 인민이 이 군대를 아니 따르고 아니 받들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아니 그들 자신이 인민인 것이다.¹⁵

<노마만리>는 또 팔로군이 행군과 이동 도상에서도 군사 정치상의 훈련과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문화 오락방면의 공작 또한 열렬히 전개하는 모습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사 정치위원회라고 할지 이런 조직이 있어서 군사 정치과목의 학습을 지도하고 군사토론, 정치토론조를 만들어 가지고 군인의 정치적 자각과 병사(兵事)지식을 제고한다. 그리고는 문화 오락 위원회라고 할지 음악대, 식자반, 독보조, 극단 이런 것을 조직하여 군인들의 시국문제 토론을 지도하고 체육, 음악 등 문화교양을 높이도록 노력한다.¹⁶

인용문에서 보듯이 팔로군의 선전공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다. 팔로군은 양가(가두촌극과 야외무용), 평극, 야외극 등 예술수단을 이용하거나 슬로건, 정치연설과 시사해설을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고 항일의식을 제고하며 중공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이다.

<노마만리>는 이 외에도 백성들이 팔로군에 대한 옹호와 지지, 적들을 대도시로 몰아넣고 포위하여 섬멸하는 유격전술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서 중공과 팔로군의 상황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4.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에 대한 역사적 증언

¹⁴ <항일근거지의 정권문제>(1940년 3월 6일), 『모택동선집』 제2권, 인민출판사, 1991년 판, p.742 참조. 화북 여러 근거지의 지방정권은 반드시 중공당원, 비당진보분자, 중간분자가 각각 3분의 1을 차지해야 한다는 중공중앙의 요구.

¹⁵ 김사량 저, 『김사량선집』, 국립출판사, 1955, pp.116~117.

¹⁶ 위의 책, p.156.

194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고압정책과 철저한 탄압으로 하여 한국 국내외의 민족해방투쟁은 준엄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경내에는 한국인의 항일민족해방투쟁으로 임시정부의 광복군, 중국 동북의 김일성부대 그리고 화북 태항산중심의 조선의용군 등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라는 상징적 의미는 지니고 있었지만, 민중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국제 상에서 외교활동에 치중하면서 광복군의 후견 세력으로 무장활동을 지원하고 있기는 했으나 일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광복군은 중국 오지의 국민당 지역인 서안에서 조직되었으나 아직 훈련 단계에 있었으므로 무장투쟁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1931 년에 일본이 ‘만주’를 강점한 이후에 ‘만주’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김일성부대는 1941 년을 전후하여 소련 영토인 시베리아로 피난을 하였다. 그러니까 1940 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선에서 치열하게 항일무장투쟁을 지속한 것은 ‘연안파’로 알려져 온 조선독립동맹회하의 조선의용군밖에 없었다.

<노마만리>는 조선청년들이 결사대를 지어 남창(南昌) 공략전에서 위훈을 떨친 일, 장개석 정권의 학살정책 때문에 무수한 조선출신 동지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일과 함께 중국경내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해 총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게 된 경위 및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우선 김사량은 탈출에 성공한 뒤, 조선의용군 총사령인 무정(武亭), 선전부장 김창만(金昌滿), 조직부장 이유민(李維民) 등의 환영을 받으며 후에는 김두봉(金斗奉), 최창익(崔昌益), 허정숙(許貞淑), 한빈(韓斌), 박효삼(朴孝三) 등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국문학자 김태준(金台俊)을 만나고 그들의 태항산 항일근거지에서의 활약을 <노마만리>에 실어 최초로 세상에 알리게 된다.

다음 <노마만리>는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로 기억되고 있는 두 차례의 전투 즉 1941 년 12 월 12 일 호가장(胡家庄)¹⁷전투와 1942 년 5 월의 반소탕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며 조선의용군의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 외에도 <노마만리>를 통해 조선의용군이 일본군의 정황 및 점령구역내의 정보수집, 적의 문건 번역, 일본군 포로 심문 및 교육, 일본군대에 대한 선전사업, 중국군대 및 조선과 중국민중에 대한 선전사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의 실정과 조선인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조 · 중 두 민족의 친선과 해방을 위하여 연설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의용군에 대한 인식을 중국민중에게 깊이 하기 위하여 연극도 보여주고 무용놀이도 구경시키고 노래를 배워주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는 말

<노마만리>는 양심적 지식인 김사량이 일제에 대한 비타협의 저항의지를 행동에 옮긴 산물이며, 끊임없는 자아반성을 동반하면서 조국독립에 대한 꿈을 안고 항일투쟁에 몸을 던진 과감한 실천이었다. 이 작품은 태항산 항일근거지를 위주로 중공과 팔로군 및 국민당을 포함한 중국혁명 상황, 중국인의 인정세태와 풍속습관 등을 진실하게 기록했다. 이는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섬감녕변구를 위주로 한 에드거 스노의 『서행만기』와 쌍벽을 이루면서 중국혁명 실상을 여실히 반영한 역작(力作)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¹⁷중국 허북성 석가장시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 호가장 전투에서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金學鐵)이 다리를 잃음. 2005 년 8 월 5 일, 이곳에 ‘김학철 항일문학비’와 ‘김사량 항일문학비’가 세워지게 되었음.

에드거 스노는 미국인 기자의 신분으로 송경령의 알선으로 중공 소비에트 지역에 들어가고 주은래가 지정해준 코스와 시간에 따라 중공과 팔로군 지도자들을 취재하면서 중국혁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달리 김사량은 식민지 작가의 신분으로 목숨을 걸고 태항산 항일근거지로 탈출하였으며,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항일투쟁에 직접 몸을 담으면서 자기의 체험을 작품화 했다. 따라서 서민층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면서 개인적인 시각으로 중국 태항산 항일근거지 및 주변 중국인의 인정세태, 풍속습관 같은 것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다.

특히 <노마만리>는 중국 관내에서 진행된 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사를 역사적으로 증언한 최초의 장편르포로서, 항일문학 혹은 민족해방문학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제말기 혼탁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시비를 따져가면서 살아가려고 한 작가 김사량의 기록을 통해 양심적이고 올곧은 지식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고뇌와 좌절, 굴절과 반성을 거쳐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난 일제치하 우리 지성사의 한 전형이 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사량 저, 『김사량선집』, 국립출판사, 1955.
 김사량 지음/김재용 편주, 『노마만리』, 실천문학사, 2002.
 埃德加 □ 斯諾 著/董樂山 譯, 『西行漫記』, 三聯書店, 1979.

2. 논문

- 문정일, 「중국전선에서 싸운 조선의용군의 항일전쟁」, 『역사비평』 제 3 호, 1990.
 염인호, 「조선의용군」, 『역사비평』 제 3 호, 1994.

3. 단행본

- 김학철문학연구회,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연변인민출판사, 2002.
 김병환 □ 박정양, 『문화학개론』, 연변대학출판사, 2004.
 김호웅, 『김학철평전』, 실천문학사, 2007.
 안우식 지음/심원섭 옮김, 『김사량 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丁英鎮, 『통한의 실증문인』, 문이당, 1989.
 張豈之 主編, 『中國歷史』(滿清民國卷), 中國: 高等教育出版社, 2001.
 毛澤東, 『毛澤東選集』 第 2 卷, 中國: 人民出版社, 1991.
 孟華, 『比較文學形象學』,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2001.
 王聚英, 『八路軍抗戰簡史』, 中國: 解放軍出版社, 2005.